

##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1)

본문: 요한복음1:35-42

-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라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  
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그의 조국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다. 종교적으로는 크게 부패하여 대제사장까지 돈을 주고 샀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무슨 일부터 시작했는가? 예수님은 이름 없는 몇 명의 제자들을 키우시는 일부터 하신 것이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유능한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이었다. 복음의 역사는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 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 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전 1:26-27)”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쓰시는가가 중요하다.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는 몇 사람의 제자 양육으로 부터 시작 한다는 것이다. 오늘은 안드레 요한 베드로를 제자 삼는 내용을 살펴 보고 다음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 제자 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공 사역을 시작 하시는 데 있어서 이름 없는 이 5섯 사람을 제자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다.

### I.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 삼음

-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 했고, 35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때까지 내려온 모든 희생제물의 마지막으로서 완전한 죄 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희생당한 어린양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처음 나온 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 복음서를 쓴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었다. 그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그 스승의 증거를 받아들여 예수님께 나왔다. 좋은 스승은 제자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예수님과 두 제자와의 처음 만남이 어떻게 진행 되며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먼저 그를 따르는 두 제자를 보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다만 문자적으로 무엇을 구하느냐는 뜻이 아니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는다. 5병2어의 기적을 행하신후 자기를 계속 따르고자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한복음 6:26)”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하여 따르지 않고 떡만을 얻기 위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외면 하신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38절)”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거처를 묻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말하지만 두 제자들은 육적인 수준에서 말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 니고데모는 육신의 출생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출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요 3:3-8).

■ 우물가의 여자는 육적 우물의 물을 말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줄 신령한 물을 말씀하신다(요 4:7-14).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이런 반응에 인내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과 약속이다. “와서 보리라 (39절)” come and you will see 이 말을 육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면 “오라 그러면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보게 될 것이다” 는 의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만일 너희가 진정으로 내게로 오면, 너희는 영적인 실재를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거듭거듭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5:40; 6:35, 37, 44, 7:37). 두 제자는 어느정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 하고 주님을 따른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거하신 곳에 가게 된 것은 오후 4시쯤 되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하루 밤을 같이 지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영적인 눈이 떠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증거는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처음 요한과 안드레를 제자 삼는 데서 제자 삼는 방식을 요약하면 처음 그들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왔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거함으로 영적인 눈이 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된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 없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 가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자라가야 한다.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가 이미 제자 삼은 자들을 이어 받아 그들을 제자로 키워 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 복음 사역에는 역사 의식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먼저 시작한 일을 계승해서 해야 한다.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이 자기 독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 사람은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스스로 거부한 어리석은 자이다.

## II. 베드로를 제자 삼음

42절을 읽어 보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마태복음 16:18에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이름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 되어 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의 반석 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리라는 것이다. 모래알처럼 흔들리기 잘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변화 시키셔서 반석과 같은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 베드로는 번덕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칭찬을 받자 곧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막 8:32-33참조)”고 책망을 받았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데도 옥에도 간다고 했지만 계집 중 앞에서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 했다(눅22: 61). 예수님이 남이 네게 떠 떠우는 데로 가야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자기만 고통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다(요한복음 21:18=21). 그러나 다른 사람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는 준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처럼 허물이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도중에 가장 뛰어난 사도로 쓰셨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의 추종자들을

찾아 진멸하고자 하는 위험스러운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룬다. 허물이 있고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훈련 시키셔서 새 사람을 만드시고 귀하게 쓰신다.

계시록 2;17절을 읽어 보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

여기서 이기는 자란 믿음을 가진 자이다(요한일서 5:4).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 해 준다는 것은 그 인생을 바꾸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준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의 미래를 책임 져 주신 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흰돌에 새겨 주심으로 위대한 인생의 길을 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은 이와 같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우리 주위에 보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쓰실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을 변화 시켜 주셔서 주님이 쓰시도록 그들을 안드레쳐섬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수백만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 D.L.무디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은 킴볼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해도 무디 같은 한 사람만 전도해도 엄청난 일이다. 여러분 주위에 무디와 같이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 있는 줄 누가 아는가? 열심히 찾고 찾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다.

다니엘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